

GS엔텍, 해상풍력 사업 진출 친환경 기자재 전문기업 전환

Sif사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
모노파일 방식 하부 구조물 제작
그룹 전반 친환경 사업 확대 전망



GS그룹 허태수 회장

GS그룹의 플랜트 및 에너지 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오던 GS글로벌의 자회사GS엔텍이 친환경 기자재 전문기업으로 거듭난다.

31일 GS글로벌의 자회사인GS엔텍은 '모노파일' 방식의 해상풍력발전 하부 구조물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최근 GS그룹은 친환경 신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모노파일(Monopile)방식이란 대형 철판을 용접해 만든 원통형 구조물로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한다. 부유식 및 삼각대(Tri-Pod), 자켓(Jacket) 등 기존의 하부 구조물 방식보다 제작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모노파일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GS엔텍은 이러한 장점이 많은 모노파일 공법을 도입하기 위해 세계 1위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네덜란드

의 'Sif 네덜란드 BV사(이하 Sif사)'와 지난 29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기술 제휴를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양사는 우리나라 및 아시아 시장의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GS엔텍은 친환경 기자재 전문 회사로 거듭나게 된다.

1988년 설립 이후 30여년간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에 들어가는 대형 화공기기 제작 사업을 영위해온 GS엔텍이 이번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사업에 진출을 계기로 친환경 기자재 전문 회사로 탈바꿈한 것이다.

도정해 GS엔텍 대표는 "기존에 대형 화공기기 제작 역량을 가진 GS엔텍이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는 Sif사와의 전략적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획기적인 모노파일 제작 공법을 통해 아시아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S엔텍의 해상풍력 사업 진출을 계기로 그룹 전반의 친환경 신사업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GS그룹은 향후 5년간 투자 금액 21조원 가운데 친환경 등 신사업·벤처에 10조원을 투자기로 하는 등 친환경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GS엔텍은 해상풍력 신사업 진출을 통해 그룹사와의 시너지는 물론 GS그룹의 ESG 경영에 촉매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허태수 GS회장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와 고객의 요구이며 특히, 기존 사업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와 함께 신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친환경 경영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LGU+, 소상공인 전용 '에스원 안심'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매장 특화 지능형CCTV와 국내 1위 보안기업 '에스원'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결합한 소상공인 전용 '에스원 안심' 요금제를 8월 1일 출시한다. 에스원 안심은 월1만1000원(5년 약정, VAT 포함)에 지능형CCTV와 함께 24시간 에스원 긴급출동 서비스를 월2회 기본 제공하는 요금 상품이다. /LG유플러스

LG엔솔 "LGES 배터리 챌린지 도전하세요"

배터리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분야 차별적인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LGES 배터리 챌린지(Battery Challenge) 2022'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Battery Challenge 2022'는 배터리 분야 스타트업이면 국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8월1일 개설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6일까지 접수 받는다.

공모분야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 ▲배터리 제조 공정 기술 ▲배터리 관리 및 제어 기술 ▲스마트팩토리 ▲BaaS(Battery as a service) 등의 분야이며 최대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사업계획서 종합 심사와 심층 화상 인터뷰를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최종 업체를 선별한다. 선별된 스타트업은 기업의 비전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피치 데이(Pitch Day)에 참석해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선정된 업체 모두에게 순위와 상관없이 상금도 제공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더 크고 젊어진 외형... 주행질감 '편안·호쾌'



기아 '더 뉴 셀토스'

3년만에 부분 변경... 엔진·미션 교체
풀옵션시 3000만원 초중반 가격 아쉬워

기아 셀토스는 치열한 국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델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에서도 지난 2019년 하반기 출시 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기아의 효자상품인 셀토스가 글로벌 소형 SUV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견고하기 다지기 위해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셀토스'로 새롭게 돌아왔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된 엔진과 미션을 모두 교체해 경쟁력을 키웠다.

최근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더 뉴 셀토스'를 만났다. 시승은 서울웨이브 아트센터를 출발해 경기 남양주 키스톤 스피드까지 왕복 62km 구간에서 1.6 가솔린 터보엔진을 장착한 모델로 진행했다.

첫 인상은 기존 셀토스의 스타일을 계승하면서도 전면과 후면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한층 강인하고 날렵한 인상을 담아냈다. 전면부 확장된 라디에이터 그릴은 더욱 웅장하고 볼륨감 있는 느낌을 받는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로지르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와이드한 모습의 LED프로젝션으로 젊어졌다. 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해 전면부와 통일감을 준다.



기아 더 뉴 셀토스 주행 모습



기아 더 뉴 셀토스 실내 모습

실내는 공간 거주성과 고급감,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10.25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연결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운전자가 한눈에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쉽도록 했다. 또 통합형 컨트롤러를 이용해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더 뉴 셀토스는 전장 4390mm, 전폭 1800mm, 전고 1620mm, 축거 2630mm 사이즈를 갖췄다. 소형 SUV로 보기엔 다소 크고 중형 SUV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2열에 177cm의 성인이 탑승해도 공간은 여유로웠다.

주행성능과 주행질감은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한층 진화했다. 한층 우수한 성능을 갖춘 스마트스트림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2.0 가솔린 모

델을 새로 추가했다. 1.6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198마력(PS), 최대토크 27.0kgf·m 성능을 갖췄다.

고속과 도심 주행모두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했다. 7단 DCT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던 이전 모델은 저속 구간에서 약간의 꿀렁거림이 느껴졌지만 이번 모델에서는 한층 부드러운 주행질감을 제공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Highway Driving Assist) 기능은 운전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했다. 고속도로에서 HDA 기능을 활성화하자 운전자의 역할은 돌발 상황을 대비해 전방을 주시하는 정도로 줄어든다.

연비는 매력적이다. 더 뉴 셀토스의 평균 복합연비는 12.8km/L이지만 실제 주행 후 확인한 결과 14.7km/L를 기록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가격이다. 소형 SUV지만 쏘나타와 K5 등의 가격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시됐다. 판매가격은 2160만원부터 시작하지만 첨단 기술을 탑재하기 위해 4륜과 풀옵션을 선택하면 3000만원 초중반까지 올라간다. 글로벌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양성운 기자 ysw@

한솔홀딩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국제표준 GRI 스탠더드 맞춰 제작

한솔그룹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가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주요 성과를 담은 '2022년 한솔그룹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31일 한솔그룹에 따르면 '2022 한솔그룹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국제표준인 GRI 스탠더드에 맞춰 제작했다.

보고서에는 한솔그룹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현황과 핵심 이슈를 읽기 쉽게 풀어낸 'Sustainability

Essentials' 파트와 ESG 경영의 정량적, 정성적 성과를 담은 'Sustainability Action' 파트로 구성돼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솔이 추구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해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 ▲환경을 위한 과학적 기후변화 대응 전략 ▲행복한 일터에서 함께하는 성장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솔그룹의 환경경영과 윤리경영,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성과 및 추진 계획도 담겨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LX하우시스

이사회 'ESG위원회' 신설

LX하우시스가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최고 심의 기구인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31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ESG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후 위원회 결의로 선임할 예정이다.

신설한 ESG위원회는 LX하우시스의 ESG경영 관련 최고 심의기구로 ▲환경·안전 ▲사회공헌 ▲고객가치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ESG경영 관련 각 분야의 기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목표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스케일업 팀스' 2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스케일업 팀스(TIPS) 2기 운영사로 5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스케일업 팀스 2기 운영사로 ▲대덕벤처파트너스, 롯데벤처스, 유에이드 ▲디티엔인베스트먼트, 내비온, 디티엔씨 ▲아주IB투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의료원, 한국기술벤처재단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엔브이씨파트너스, 전략컨설팅집현 ▲캡스톤파트너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퓨처플레이, 스파크랩, 미래과학기술지주 등 컨소시엄 5곳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는 8월부터 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해 추가 성장을 돕는다. /김승호 기자